

한화큐셀, 유럽시장 지배력 강화 “지역본부 첫 방문지는 한국”

伊 대형마트에 태양광 모듈 공급

다결정고효율 모듈 ‘큐플러스’
상업용 설치 솔루션 ‘큐플랫’
이탈리아 북부지역 21곳서 출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큐플랫을 활용해 설치된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 기술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특히 단순 모듈 판매를 넘어 유럽시장에 특화된 솔루션을 지속 출시 현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화큐셀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21개 대형마트에 태양광 모듈 ‘큐플러스(Q.PLUS)’와 상업용 설치 솔루션 ‘큐플랫(Q.FLAT)’을 함께 공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한 큐플러스는 한화큐셀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다결정고효율 태양광 모듈이다. 큐플랫은 평평한 지붕에 제품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상업용 솔루션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7년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선언한 이후 태양광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화큐셀은 그동안 유럽 주요 국가에서 확보한 인지도와 호평을 바탕으로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과 솔루션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독일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EuPD 리서치’가 발

표하는 ‘유럽 태양광 모듈 톱 브랜드’에 6년 연속 선정됐다.

김희철 사장은 “대형마트 지붕과 같은 도심 유휴부지에 분산형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의 장점”이라면서 “모듈 판매뿐만 아니라 유럽시장에 특화된 주택용·상업용 솔루션을 계속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캠볼리브 르노삼성 지역본부 회장
2만1000여 임직원에게 메시지 전달



패브리스 캄볼리브 르노 그룹 AMI태평양 지역본부 회장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는 르노그룹 내 소속 지역 본부가 5월부터 ‘아프리카·중동·인도·태평양(AMI태평양)’으로 변경되면서 패브리스 캄볼리브 지역본부 회장이 르노삼성차 등 지역본부 소속 2만 1000여명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본부 개편 이후 첫 행선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7일 밝혔다.

캠볼리브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르노그룹 AMI태평양 소속 지역의 방대함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먼저 언급했다. AMI태평양 지역 본부는 3개 대륙, 100개 이상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전 세계 인구의 약 56%인 43억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 해 신차 판매량이 약 1200만 대에 달한다. 캠볼리브 회장은 이러한 수치들에 대해 “우리가 마주한 도전들의 방대함과 성장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캠볼리브 회장은 지역본부 소속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번 메시지에서 특별히 한국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내보였다. 지역 본부에 속한 주요 제조선진국 및 수출국가 소개에서 한국을 시작으로 인도, 모로코, 알제리 등을 언급했으며

한국 등 수출국가들이 처해 있는 수출 지역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AMI태평양 지역 본부가 이를 도울 수 있는 실무 경험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본부 개편 이후 첫 방문지도 한국의 르노삼성자동차가 될 것임을 밝혔다.

르노삼성차는 AMI태평양 지역본부 내에서 주요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곳이다. 용인에 위치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구 르노삼성차 중앙연구소)는 르노그룹 내 핵심 연구개발기지로서 특히 D세그먼트 차량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우아한 외관에 고성능 겸비 ‘사모님차’

자동차 시승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주행 중인 2019년형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정연우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올해 초 출시한 2019년형 중형 SUV(스포츠 유틸리티차)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는 지난 1969년 최초로 선보여 레인지로버 브랜드의 시작을 알린 모델이다.

벨라는 인기 종영된 드라마 ‘SKY 캐슬’에서 극 중 ‘에서엄마’ 한서진 역을 맡은 배우 염정아의 차로 주목을 받으며 ‘강남 사모님’차로도 이름을 알렸다.

기자가 만난 시승차량은 ‘레인지로버 벨라 P380 R-다이내믹 SE’ 가솔린 모델이다. 벨라의 운전대를 잡고 서울에서 출발해 고양, 파주를 거쳐 약 83km를 주행했다. 고속도로와 도심구간, 오프로드를 달리며 안정된 승차감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벨라의 외관은 ‘역사상 가장 우아한 레인지로버’라는 찬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2018 월드 카 어워드’서 ‘2018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 상을 수상한 레인지로버 벨라는 우수한 디자인과 완벽한 엔지니어링이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다.

내부 디자인도 아름답다. 옅은 색 가죽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시트와 핸들에 처리된 가죽의 고급감은 SUV에 어울리지 않게 호사스러웠다.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처럼 벨라의 내부 인테리어는 탑승 전 신발과 옷에 흠이 묻어 있다면 깨끗이 털

SKY캐슬 ‘에서엄마차’로 주목
2018 세계 자동차 디자인상 수상
핸들·시트, 고급스러운 가죽처리

첨단기능 탑재로 안전성 높여
오프로드 주행도 정숙성 발휘

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제원은 전장 4804mm, 전폭 2041mm, 전고 1685mm, 공차중량은 1959kg이다. 적재공간은 558리터로 넉넉하다. 최대 2열 시트를 접으면 1616리터까지 확장 가능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따르면 벨라는 650mm의 도강 능력을 선보여 오프로드에서도 그 성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시승 중 비 포장도로를 만나 산길과 자갈길을 잠시 주행했지만 흔들림이 크지 않았다. 승차감은 한적한 일반도로를 달릴 때 크게 발휘됐다. 배를 타고 잔잔한 강물을 지나 는 것 같은 정숙성을 느낄 수 있었다.

파워트레인은 최고출력은 380마력, 토크는 45.9kg·m 수준이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까지 주파하는 데 단 5.7초 만이 소요돼 고속구간에서 벨라의 속도감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때 들리는 엔진 음도 매력적이다. 안정감을 훌륭해 고속에서 차선을 바뀌도 민첩하게 움직였다.

탑재된 첨단 기능이 많아 주행하면서 고성능 차량이라는 점을 실감했다. 360도 주차센서와 후방 교통감지 기능이 포함된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이 탑재되며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휴식을 권하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기본 옵션으로 탑재돼 주행 안전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운전석에 마사지 기능이 장착돼 장시간 주행에 피로감을 덜어 주었다. 그러나 2열 시트의 경우 신장 180cm 이상의 성인이 탑승하기에는 비좁았다. 헤드 룸은 넉넉했지만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1열에 있다면 앉기 힘들었다.

한편 벨라는 파워트레인과 사양에 따라 총 6가지 트림으로 판매된다. 시승을 진행한 P380 R-다이내믹 SE는 1억1280만원으로 서민층이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 보인다. SUV이지만 오프로드를 달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차량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KT, 삼성SDS·신성이엔지와 스마트팩토리 개발 협력
KT는 삼성SDS, 신성이엔지와 함께 경기도 용인 신성이엔지 공장에서 5G 스마트팩토리 사업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5G 스마트팩토리와 산업용 사물인터넷 사업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7일 밝혔다. 3사는 향후 ▲5G 기반 사업 실증사례 발굴 ▲산업용 사물인터넷 사업 확대 ▲시범 및 실증 사업을 위한 인프라·플랫폼·서비스 협력 ▲KT ICT 기술적용 스마트팩토리 제품 개발 및 공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KT 정운식 전무(왼쪽부터), 신성이엔지 이영일 전무, 삼성SDS 채경일 상무가 MOU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KT,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지원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 개소
내달 15일까지 크리에이터 모집
50명 선발, 10주간 교육 진행



1인 미디어 창작자 실무 교육을 지원할 신혜리 인플루언서가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KT

KT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교육을 위한 복합 공간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를 열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육성 및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는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인 미디어 기획, 촬영 및 편집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1인 미디어 전문인력을 배치해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닌 실무형 멘토링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리에이터 모집은 공모전과 수시 모집을 통해 이뤄진다. 처음 진행되는 공모전은 ‘크리에이터 K’라는 타이틀이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달 15일까지 지원받는다.

공모전에서 1차로 선발된 50명은 발대식을 거쳐 10주간 크리에이터 팩토리 센터에서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는 물론 10주간의 제작 교육과 제작비를 지원받아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최종 시상은 9월 28일 진행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